

# 수량은 줄고 금액은 약간 증가

421,000톤에 3,957억엔 출하

올해 일본의 농약출하는 지난해 보다 수량은 줄고 금액은 약간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월17일 일본농약공업회가 발표한 94농약년도(1993년 10월~1994년 9월)의 출하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하량은 42만1천톤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으나 출하금액은 3천9백57억엔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출하량이 줄어든 주원인은 고성능(高性能)상품의 보급으로 농약의 단가가 상승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기상여건이 좋아 병해충 발생이 적었고 제조제가 경량화(輕量化)되면서 살균·살충·혼합·제조제 전분야에서 수량이 감소한 반면 금액은 증가했다. 이번 농약년도의 상반기에는 출하수량·금액 모두 전년보다 상승세를 보였지만 8,9월에 출하수량에 제동이 걸렸다.

농약공업회가 1990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농약출하추이를 보면 92년까지는 감소경향이다가 93년에 비농사용 농약의 증가로 약간 회복, 금년에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출하금액은 조금씩이나마 매년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①**살충제** 비농사에서는 해충 발생이 적었고 신규혼합제의 영향도 있어 이화명충·멸구·매미충·물바구미약이 수량·금액 모두 약간 감소했다. 채소 및 발작물에서는 응애약이 수량·금액 모두 대폭 증가했다. ②**살균제** 올해는 도열병이 일찍 발생했지만 전체적인 발생량은 적었다. 따라서 도열병약, 도열병·문고병약의 출하가 감소했다. ③**혼합제** 출하량은 줄었지만 고가품의 비중이 커 금액이 약간 증가했다. ④**제조제** 비농사용 초기처리제는 올봄출하된 MO제를 회수하는 바람에 수량·금액 모두 대폭 감소했다. 때문에 일발처리제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특히 경량화된 1kg 플로어블(flowable)제는 무려 33억엔이나 증가했다.

농약의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배경에는 편리하고 효과가 우수한 농약의 보급이 있다. 그 전형적인 보기가 금년에 등장한 논잡초약인데 1/3의 양으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제조회사의 개발전략도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살포횟수를 줄일 수 있는 제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출하량이 감소해도 출하금액은 느는 것이 이런 경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표1. 94농약년도 출하실적

	수량 (톤, kt)	전년대비 (%)	금액 (백만엔)	전년대비 (%)
<b>비농사용</b>				
살충제	55,258	92.8	27,793	93.4
살균제	60,137	95.2	40,303	105.7
살충·살균제	51,982	95.5	27,754	106.5
제조제	89,890	96.9	66,650	107.0
소계	257,267	95.3	162,500	104.0
<b>과수용</b>				
살충제	16,126	100.8	30,594	105.0
살균제	14,710	96.3	26,433	96.7
살충·살균제	124	106.0	173	97.2
제조제	4,511	104.7	11,897	99.0
소계	35,471	99.4	69,097	100.6
<b>채소·발작물용</b>				
살충제	49,589	102.9	51,218	103.9
살균제	27,279	102.7	37,712	100.6
살충·살균제	411	49.1	461	68.5
제조제	16,583	95.9	19,877	100.9
소계	93,862	101.1	109,268	102.0
기타	34,749	101.8	54,820	103.5
<b>총계</b>	<b>421,349</b>	<b>97.4</b>	<b>395,685</b>	<b>102.8</b>